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숙명적 관계

컴퓨터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곧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연상하게 된다.

이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다. 마치 우리 인간생활에 있어서 부부 관계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결혼하기전에는 남자나 여자는 각각 반쪽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즉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결혼이라는 과정을 거쳐 한쌍의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그후 가정을 꾸미고 자식을 낳게 된다. 이때에 만약 불행하게도 지진아를 낳았다고 하자. 부모들은 서로가 잘못했다고 상대방을 공박 할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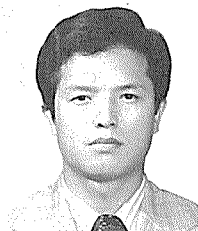
아마도 바람직한 부부라면, 잘잘못은 뒷전에 두고, 자식을 온전한 인간으로 키우기 위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자식은 차차 완전한 인간으로 재 탄생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컴퓨터를 직접 취급하는 요원들은 크게 하드웨어컴퓨터전문가(CE, FE)와 소프트웨어전문가(SE, SA)로 분류할 수가 있다.

이들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도중에 각종 장애(TROUBLE)를 경험하게 된다. 틀림없이 하드웨어장애나 소프트웨어 장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문제는 이 장애 요인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가

**방영철**  
대청전기(주) 이사



가끔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심지어는 상대방을 불신하게 된다. 그러다보면 언성이 높아지고 불미스러운 사태까지 진전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서로를 이해하여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는 서로 상대방이 있으므로서 각각 존재하는 것이다. 때문에 상호보완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하드웨어도 없고 또한 완전한 소프트웨어도 없는 것이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여야만이 훌륭한 컴퓨터로써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서 좀 더 발전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가능한 것이다. 처음에 이야기한 부부관계 처럼 서로를 공박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협조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 충분히 협조하여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우리 주위에는 산적해 있지 않은가?